

키르케고르의 기독교 세계관

이창우((주)예람, 사목)

1. 들어가는 말

지금은 바야흐로 전 세계가 4차 산업 혁명에 휘말리고 있다. 유발 하라리는 『사피엔스』와 『호모 데우스』라는 방대한 책을 내놓으면서 인간이해에 대한 해석학적 진단을 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호모 사피엔스는 종말이 온다. 유기체 알고리즘은 비유기적 알고리즘과 다르지 않다. 그가 말하는 신성이란 지금까지 사피엔스가 적응해왔던 지구생태계의 방식인 자연선택을 지적설계로 대체하고, 생명을 유기적 영역에서 비유기적 영역으로 확장하는 능력이다.¹⁾ 하라리에 따르면, 기술 혁명은 마치 인간 이해를 달리 해야 할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4차 산업 혁명에 대해 하나의 “호들갑”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4차 산업 혁명이라 불리는 여러 기술들(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자율주행차 등)이 획기적인 혁신인지는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다.²⁾

한편, 많은 사람들이 4차 산업 혁명의 특징을 “초연결” 사회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새 인류가 호모 커넥투스다. 세계는 데이터로 표상되며, 이 데이터들의 결합인 빅데이터는 인공지능이 분석하고 판단한다. 사람과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이 연결되고 무한대로 확장된다. 쉴 새 없이 연결되고 지식은 자동 생성된다. ‘호모 커넥투스’는 언젠가 ‘AI 커넥투스’로 바뀔 것이다. 아마도 이런 ‘AI 커넥투스’를 만든 인간을 일컬어, 유발하라리가 ‘호모 데우스’라고 말한 것처럼 보인다.

이런 시대에, 기독교 세계관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기독교 세계관은 어떤 의미에서 중요한가? 세계관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다. 그리스도인은 이 시대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 것인가? 지금 다시 기독교 세계관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이런 질문에 대해 대답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지역을 막론하고, 세대를 넘어 교회 내에서 청소년, 청년 및 장년의 수가 급감하고 있다. 기독교는 날이 갈수록 세상에서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과거 기독교는 세상을 향해 책망했지만 지금은 세상이 기독교를 향해 책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독교가 진보와 보수로 이렇게 나뉘어 적이었을 것이다. 그 어느 때보다도 서로 이렇게 다투어 적이었을 것이다. 어찌 보면, 기독교는 환경적으로 기술적으로, 내외적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 다시 본질로 돌아가서 기독교 세계관을 점검해봐야 한다고 본다. 기독교적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한다. 하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결국 충돌과 분쟁

1) Yuval Noah Harari, 『사피엔스』 조현욱 역 (서울: 김영사, 2015), 103.

2) 다음을 참고하라. ‘4차 산업 혁명’이라는 호들갑과 기술결정론, 노동자 연대신문 2017년 9월 21일자

<https://wspaper.org/article/19355?fbclid=IwAR11iLL>

을 낳는다. 똑같이 성경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진보와 보수로 나뉘고, 똑같이 성경을 보는데도 정통과 이단으로 나뉜다. 무엇이 문제인가? 관점의 문제이다. 어떻게 이 관점을 통합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보와 보수가 하나 될 수는 없는가?

인간적인 이해로 보자면, 이것은 영원히 불가능하다. 세계 역사가 이것을 증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불가능한 일을 시도해보고자 한다. 이런 점에서 본고는 불가능의 가능성이요, 희망 없는 희망이다.

연구자는 키르케고르를 연구해왔던 사람으로, 그의 사상에서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먼저, 전통적인 관점에서 기독교 세계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찾고자 한다. 첫째, 기존의 기독교 세계관이 놓친 점이 있다면, 세계관은 삶의 문제가 아니라 행함의 문제라는 것이다. 아무리 지성적인 면에서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 해도 현실문제에 대한 행함의 결단 없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 이런 식의 세계관은 앙금 없는 찰떡과 같다. 둘째, 키르케고르의 이해를 따르자면 세계관의 문제는 진지함(earnestness)의 문제다. 오직 진지함의 문제일 때만 관점은 전복된다. 일종의 패러다임 전환이다. 셋째, 결국 세계관은 책임의 문제다. 하지만 이 책임은 사람 앞에서의 책임이라기보다 각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책임감이다.

연구자는 키르케고르의 사상에서 이 세 가지의 범주의 중요성을 밝힌 후, 이를 통해 4차 산업 혁명의 기술적 환경을 해석하고 현재 갈등 중에 있는 진보와 보수의 통합의 가능성을 논할 것이다.

2. 전통적 세계관의 문제

지금 다시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는 1980년대 초 국내에 기독교 세계관이 소개된 이후로 지금까지도 한국교회가 기독교적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미 밝혔듯이, 현재 한국의 기독교는 그 힘을 상실하다 못해, 멸시의 대상이 되고 있다. “가나안” 성도는 가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진보와 보수의 갈등은 그 어느 시대보다 더 거세지고 있다. 서로 다른 관점을 통합하는 일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역사적 관점에서 이를 살펴보면, 서구의 기독교 세계관은 제임스 샐러의 『기독교 세계관과 현대사상』을 중심으로 알버트 월터스의 『창조, 타락, 구속』, 그리고 리처드 미들튼과 브라이언 월쉬의 『그리스도인의 비전』 등이 1980년대에 소개되면서 시작되었다고 한다.³⁾ 기독교 세계관이 소개될 당시, 한국 교회의 신앙은 두 가지 추세가 있었다. 삼박자 구원으로 대표되는 축복 위주의 신앙과 현실 도피적 천국관이 기승을 부렸던 것이다.⁴⁾

김승호에 의하면, 한국의 기독교 세계관 운동은 1990년대에 그 열기가 식었다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다시 논쟁이 뜨겁게 일어났다고 한다. 이 시절은 정치적으로는 김대중 대통령이 통치하던 시절로 민주화가 상당히 진행되던 과정에 있었고 경제적으로는 IMF 사태 이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다. 또한 교회적으로는 성도 수에 있어서 한국 교회 전체 차원에서는 정체 상황에 직면했지만, 수도권 신도시의 건설로 인해 신도시에 급성장하는 교회들이 대거 출현함으로 여전히 교회가 성장하는 것처럼 착각

3) 김승호, “국내 기독교 세계관 연구에 대한 성찰,” 『신학과 목회』 49집 (2018년 봄): 84.

4) Ibid.

하던 시절이었다.⁵⁾

2000년대 초반 이런 상황 가운데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 일종의 한국 교회의 성장주의, 물량주의, 세속주의, 개교회주의 등 세상과 일치하는 측면도 있었지만, 세상의 이슈에 대한 관심부족 즉, 교회 이슈에만 매몰되어 세상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이슈들에 대한 무관심에 대한 비판이었다.

또 다른 비판이 있다면, 세계관 논의가 그동안 너무 명제적이었다는 것이다. 국내 세계관의 논의가 명제적 성격으로만 주어짐으로 실질적인 삶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인지적 차원에서 멈추어 버렸다는 것을 지적한다. 따라서 창조-타락-구속-완성이라는 기독교 세계관의 패러다임적 특성을 명제적 성격보다는 성경을 구성하는 원래의 이야기, 즉 성경의 내러티브적 성격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다.⁶⁾

이런 비판과 더불어, 세계관의 문제는 현재 한국 교회에서 더 심각한 것처럼 보인다. 이미 교회는 세습 문제, 동성애문제, 교인 수 급감 문제, 진보와 보수의 갈등과 같은 문제로 양분된 상태다. 전통적인 세계관이 여러 관점들이 있다는 것을 단지 소개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런 갈등과 내분을 해결할 수 없다. 세계관의 문제가 실천의 문제와 동떨어질 수 없다는 것에는 대다수가 동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어떤 이유로 실천 문제 있어서는 실천에 전혀 관심이 없거나, 전혀 다른 관점으로 갈등과 싸움을 해야 하는가? 동일한 그리스도인이면서 관점이 다른 두 집단이 서로 화해하고 양보할 수는 없는 것일까? 동일한 성경을 보고도 관점이 나누어졌음에도 서로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일까? 연구자는 이런 가능성을 키르케고르에게서 찾고자 한다.

3. 얇이 아닌 삶으로의 세계관

키르케고르의 『스스로 판단하라』는 “세계관의 책”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책은 근본적으로 “술 껌”과 “술 취함”의 문제를 다룬다.⁷⁾ 세상은 거룩한 정신(Holy Spirit, 성령)에 사로잡힌 사도를 보고 술 취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사도 베드로는 그런 세상을 향해 “술 깨라”고 선포한다.⁸⁾ 심지어 그는 헤겔의 세계정신 혹은 시대정신과 거룩한 정신을 비교하며, 시대정신을 귀신, 악한 정신이라고까지 말한다.⁹⁾ 누구 말이 맞는가? 그에 의하면, 이 관점은 타협하거나 혼합할 수 없다. 그냥 보는 관점이 다른 것이다.

기독교의 타락은 이런 분리된 관점을 혼합하는 데에 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는 무한히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지혜를 밀반입하여 하나님의 지혜와 혼합할 때 기독교의 타락이 시작된다. 기독교가 제대로 서기 위해서는 세상을 보는 관점을 혼합하지 말고, “거룩한 정신”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술이 켜다는 것은 정신을 차려 진정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것

5) Ibid. 90.

6) Ibid., 91. 더 구체적인 논의는 다음을 참고하라. 박충, “기독교 세계관을 확 뜯어 고쳐라,” 『복음과 상황』 122 (2002), 97-107; 최태연, “기독교 세계관을 고개 들게 하라!” 『복음과 상황』 123 (2002), 50-56; 양희승, “기독교 세계관: 담론, 운동, 혹은 논란(I),” 124 (2002), 42-52; 김기현, “명제신학 vs. 이야기 신학,” 『복음과 상황』 125 (2002), 80-84.

7) Søren Kierkegaard, 『스스로 판단하라』 이창우 역 (서울: 샘솟는기쁨, 2017), 15-22.

8) 베드로전서 4:7을 참고하라. 개역개정 성경으로 “정신을 차리고”는 헬라어 원어로 “*νηψατε*”으로 “술 깨라(sober)”는 의미이다.

9) Søren Kierkegaard, 『자기 시험을 위하여』 이창우 역 (서울: 샘솟는기쁨, 2018), 132.

이듯, 하나님 앞에서 무가 되어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다.

“자기 지식 안에서 정신 차려 자기 자신이 되기, 그리고 무한히 무조건적으로 사로잡혀 하나님 앞에서 무(nothing)로서 그분 앞에서 정신 자리기. 이를 술 깬다고 할 수 있다.”¹⁰⁾

기독교 관점에서 보면, 오직 성령에 취한 자만 술 깬 자다. 오직 이 사람만 제 정신이 든 사람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세상은 비정상이고, 비정상이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게다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자신의 능력, 재능, 자격조건, 가능성에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은 정신을 차린 것이 아니다. 기독교 관점에 의하면, 이것은 여전히 술에 취한 상태다.

키르케고르의 용어를 사용하자면, 이 모든 것들은 확률이다. 확률에 이르는 길은 점점 더 술에 취하게 되는 길이다. 점점 더 혼란에 빠져든다. 백만분의 일의 확률만 있어도 믿고 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길이 아니다. 이것은 마치 복권에 당첨될 확률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복권을 사는 행동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이런 사람이 섬기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확률 신”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기 때문에 술 깨야 한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행위”란 무엇인가? 그것은 전혀 가능성이 없는 곳에서도 “행동을 감행하는 모험”이다. 즉, 그리스도인은 확률을 의지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은 확률을 의지하지 않는 모험을 감행할 정도의 행동을 했을 때, 바로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이다.

그는 이런 점에서 산상수훈에 천착한다. 그 중에서도 그의 관심은 단연코 들의 백합과 공중의 새다. 그가 이 부분에 대한 강화만 13편을 남겼다는 것만으로 이를 반증하고 있다. 『스스로 판단하라』는 들의 백합과 공중의 새의 강화가 시작되기 직전 말씀인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 한다”는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을 집중 해부한다. 이 말씀은 영어식으로 표현하자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cannot)”는 것이다. 그러나 키르케고르는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여태껏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 결코 단 한 사람도 살지 않았어. 복음이 말한 것과 관련해서 이것은 수행될 수 없어. 이것은 오해임에 틀림이 없어. 복음은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기지 말아야 한다(must not)’고 말했다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면 전 세계의 경험이 증명한 대로, 그것은 확실히 잘 수행될 수 있을 거야. 그러나 누구도 이것은 할 수 없어.¹¹⁾

그에 의하면, 이 세상에서 오직 한 주인을 섬긴 단 하나의 예가 존재한다. 그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시다. 오직 그분만이 단 하나의 주인을 섬긴 예다. 그분은 하나의 주인을 섬긴 예가 되기 위해 “아버지도 없이, 어머니도 없이, 족보도 없이”(히 7:3) 태어났다는 것이다. 경주에 출전하는 자가 이를 위해 옷을 차려 입듯이, 싸움에 나가는 자가 이를 위해 무장을 하듯이, 그분의 삶은 처음부터 오직 한 주인을 섬기는 것이 가능하도록 계획되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에게 어려움이 생긴다. 확률에도 의존하지 않는 모험을 해야 하고, 오직 단 하나의 주인을 섬긴 예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한다. 이것이 가능한가? 하지만 인간의 이성으로는 어

10) Søren Kierkegaard, 『스스로 판단하라』, 30.

11) Ibid., 98.

떤 가능성도 생각할 수 없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빠질 수밖에 없는 “절망”이다. 키르케고르가 쓴 책인 [죽음에 이르는 병]은 절망에 관한 책이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란 절망이기 때문이다. 그에 의하면 절망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비본래적 절망, 다른 하나는 본래적 절망이다.

다시 비본래적 절망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절망하는 자신을 의식하지 못하는 절망, 다른 하나는 자기가 되지 않으려는 절망, 마지막으로 자기가 되려는 절망이 그것이다.¹²⁾ 이 절망은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는 절망이다. 하지만 아무리 절망한다 해도 본래적 절망은 아니다. 본래적 절망은 오직 하나님 앞에 있을 때만 느끼는 절망이다. 키르케고르의 설명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죄란 이렇다. 하나님 앞에서, 혹은 하나님에 대한 개념으로, 절망하여 자기 자신이 되지 않으려 하거나 절망하여 자기 자신이 되려는 것이다. 따라서 죄란 강화된 약함이거나 강화된 반항이다. 곧, 죄란 절망의 강화다. 강조점은 “하나님 앞에서”에 있다. 혹은 하나님에 대한 개념에 있다. 변증법적으로,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죄를 변호사들이 “가중처벌”이라 부르는 절망으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다.¹³⁾

이런 믿음의 행위 앞에, 본받음 앞에서, 누구나 실족할 수밖에 없다. 누구나 절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키르케고르는 이런 절망을 “하나님의 뜻밖의 선물(godsend)”이라고 강조했던 것이다.¹⁴⁾ 절망하거나 실족한 적이 없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다시 말해, 기독교는 십자가의 실족을 제거함으로써 타락하고 변질되었다.¹⁵⁾

키르케고르가 강조하는 행위는 엄밀하다. 이 세계가 이해할 수 없는 행위다. 다시 말해, 시대정신, 세계정신이 포착할 수 없는 행위다. 이 길은 점점 더 좁아진다. 처음엔 좁다가 점점 더 넓어지는 길이 아니다. 아니, 처음부터 좁다가 점점 더 좁다가 결국은 죽음에 이르는 길이다. 이 길 위에서 행위 앞에서 선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다.

이 길을 가기 위해서는 관점이 전환되어야 한다. 세계정신이 아닌, 시대정신이 아닌, 거룩한 정신 곧 성령에 사로잡혀야 한다. 성령에 사로잡히기 위해서, 관점이 전환되기 위해서, 반드시 실족과 절망의 길을 통과해야 한다.

4. 진지함이란?

키르케고르의 사상을 한 마디로 요약한다면, “코람데오”다.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으로 라틴어이다. 이런 코람데오의 사상이 깃들여 있는 단어가 바로 “진지함(earnestness)”이다. 그에 의하면, 진지함이란 일종의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이다. 그는 [사랑의 역사]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12) Søren Kierkegaard, *The Sickness Unto Death* Trans. Howard V. Hong and Edna H. Hong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0), 13. 이 병은 정신의 병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인간은 정신이다. 그렇다면 정신은 무엇인가? 정신은 자기이다. 이러한 서술을 통해서 이미 이 책은 정신에 관한 책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설명하고 있다.

13) Ibid., 77.

14) Ibid., 26.

15) 이 부분에 대하여는 다음을 참고하라. Søren Kierkegaard, *Works of Love* Trans. Howard V. Hong and Edna H. Hong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5), 194-204.

삶의 진지함이란 무엇인가? 진실하게 이 질문을 당신 자신에게 묻는다면, 이에 대해 어떻게 대답할지를 생각해 보라. 당신이 어떻게 대답할지를 내가 상기시켜 준다. 진지함이란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다. 사람이 무엇을 행하든, 무엇을 생각하든, 무엇을 말하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따라오는 곳마다, 거기에는 진지함이 현존한다. 그 속에 진지함이 있다. 그러나 돈은 세상의 신이다. 따라서 세상이 돈과 관계하는 곳마다, 진지함이 있다고 생각한다.¹⁶⁾

세상은 돈이 신이기 때문에 돈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만 진지하다. 반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 앞에서의 진지함이다. 이미 언급했듯이, 이 관점은 통합할 수 없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엄청난 부를 획득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대단한 인물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설교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다.

[자기 시험을 위하여]에서도 진지함의 문제를 다룬다. 이 책에서 말하는 진지함이란 행위 앞에서의 진지함을 의미한다. 하지만 기독교의 타락은 행위 앞에서의 진지함을 학문적 진지함으로 바꾸어 놓았다는 것이다. 성서의 거대한 연구를 마치 대단한 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학문적 연구는 행위 앞에서의 진지함을 망각하게 한다.¹⁷⁾ [죽음에 이르는 병] 역시 진지함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죽음에 이르는 병 서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모든 기독교적 삶이란 그 형태가 아무리 엄격해도, 관심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런 관심(concern)¹⁸⁾이 삶과의 관계를, 개인의 현실과의 관계를 만든다. 따라서 기독교적 관점에서 나온 진지함을 만들어낸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보면, 무관심한 지식(indifferent knowledge)의 고귀함은 진지해지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기독교적으로 볼 때, 그런 지식이란 일종의 조롱(witticism)이요, 가식이다. 반면, 진지함이란 건덕이다.¹⁹⁾

진지함을 한 마디로 정리한다면, 하나님 앞에서의 실존적 결단을 통한 모험의 감행이다. 키르케고르는 이에 대한 예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험을 제시한다. 물론 [두려움과 떨림(Fear and Trembling)]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험이 주된 내용이지만 [자기 시험을 위하여]에서는 진지함과 관련해 더 많은 내용을 다룬다.

이미 제시한 것처럼, 시대정신은 정상이 아니다. 이미 술 취한 상태다. 오직 성령에 사로잡힌 정신만이 정상이고 올바른 세계관을 가진 정신이다. 문제는 “생명을 주는 영”(요6:63)이 오시는데, 이 영은 생명을 주기 전에 먼저 죽음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기독교적 행위 앞에서 진지해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사람에게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은 없다. 죽음만큼 강한 권력자도 없다. 누구도 죽음을 이긴 자는 없으니까. 문제는 먼저 죽음을 요구하는 기독교가 어떻게 부드러운 위로일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오히려 얼마나 소름끼치는가? 생명을 주는 성령이 오시는데 먼저 죽음을 요구하다니! 따라서 성령께서 주시는 생명은 자연적인 수명의 연장, 직접적인 연장이 아니다.²⁰⁾ 이것은 새로운 생명이다. 죽음 사이에 이 생명이

16) Ibid., 320.

17) Søren Kierkegaard, 『자기 시험을 위하여』, 63-4.

18) 이 단어는 독일어로 *sorge*이고 덴마크어로는 *Bekymring*이다. 하이데거는 이 용어를 실존의 중요한 요소로 제공하고 있고 우리 말로는 “심려”로 번역되기도 한다.

19) Søren Kierkegaard, *The Sickness Unto Death*, 5-6.

20) Søren Kierkegaard, 『자기 시험을 위하여』, 136.

온다는 것이다. 이것은 토마스 쿤이 말하는 일종의 패러다임 전환일 수 있고, 세계관의 전환이라 말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진지함은 일종의 영적인 초대요, 중단이다.²¹⁾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죽음인가는 육체의 죽음과 비교하여 설명한다. 우리의 육체가 죽음을 맞는다는 것은 단 한 번의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다. 그러나 영적인 죽음은 날마다 죽어야 한다. 바로 이런 죽음 앞에서 진정 죽음을 경험한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것이다. 이 죽음은 육체의 죽음보다 말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하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진지해진다. 그는 이 죽음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러므로 죽음이 먼저다. 당신은 먼저 이 땅의 모든 소망에 대하여, 모든 인간적 확신에 대하여 죽어야 한다. 당신은 이기심에 대하여, 이 세상에 대하여 죽어야 한다. 세상이 당신을 지배하는 것은 오직 당신의 이기심을 통해서만 가능하니까. 당신은 이기심에 대하여 죽는다면, 당신은 또한 세상에 대하여 죽는다.²²⁾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방식이기도 하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얻기 위해 싸우지 않는다. 세상에서 대단한 인물이 되기 위해 분투하지 않는다. 다만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기 위해 싸운다.

그리스도인이 진지해질 수밖에 없는 행위 앞에 언제나 “영적 죽음”이 함께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때 이 진지함은 사람 앞에서의 책임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 의식이다. [두려움과 떨림]은 일종의 이런 책임 혹은 윤리 의식에 대한 책임이다.

5. 책임 의식

이미 언급했던 것처럼, 현재 한국의 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양분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침체에 접어들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실망하여 떠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세계관이 무슨 역할을 할 것이며 어떻게 서로를 화해시킬 수 있을까? 이 물음에 대한 근본적인 답이 있다면, 연구자는 그것은 책임의 식이라고 본다. 이런 의미에서 키르케고르의 책임의식은 굉장히 고차원적이다.

키르케고르의 실존의 3단계는 익히 알려진 바이다. 아마도 실존의 3단계를 설명하는 데 있어 아브라함의 믿음의 “질적 비약”은 결정적 역할을 한다. 쉽게 말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은 윤리 밖에서의 행동이라는 것이다. 아버지가 종교적인 이유로 자식을 죽인다? 오늘날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한다면, 뉴스에 큰 화제 거리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윤리이고,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것은 폐륜적 행동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기를 결단한 것은 일반적인 유희과는 다른 시험이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유희는 키르케고르의 실존단계에 의하면 1단계인 심미적 단계를 따를 것인가, 2단계인 윤리적 단계를 따를 것인가로 규정될 수 있는 반면, 아브라함의 시험은 2단계인 윤리적 단계를 따를 것인가, 3단계인 종교적 단계를 따를 것인가로 규정될 수 있다. 이것이 유희와 시험의 본질적 차이이다.

그가 종교적 단계의 행동을 결단할 때, 세상의 지혜는 이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 다시 말해, 그의 행위는 “광기”나 다름이 없다. 따라서 이 행위를 감행할 때, 그는 심지어 그의 아내하고도 상의할 수 없다.²³⁾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관계할 뿐이다. 바로 이 주체가 그가 말한 단독자이다. 윤리를 초

21) Ibid., 137.

22) Ibid., 138

월한 어떤 지점에서 오는 의무 앞에 선다. 윤리가 근본적으로 어떤 의무 규정이라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경험한 의무는 절대적 의무로서 윤리 밖에 존재한다. 따라서 그가 감행하기 위한 행위 역시 윤리적 책임 밖에 있다. 세상의 지혜는 이 책임을 포착할 수 없다. 그리하여 그는 홀로 선다.

이런 구약의 책임과 의무관계는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더욱 선명하게 나타난다. 키르케고르는 이런 무한한 의무와 책임감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찾는다. 먼저 이를 논하기 위해, 우리는 [사랑의 역사]에서 나오는 무한한 빛에 대해 이야기 하지 않을 수 없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에서 사랑의 빛은 누가 지는가? 사랑을 받은 자식이 사랑의 빛을 진다.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사랑에서의 일반적인 사랑의 이야기에 해당된다. 하지만 기독교의 사랑은 사랑의 빛을 받는 자 쪽에서 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하는 자 쪽에서 지는 무한한 빛이라는 것이다.²⁴⁾ 그리스도인은 사랑의 빛 외에는 어떤 빛도 지지 말아야 한다.(롬13:8) 하지만 사랑하는 자 쪽에서 이런 사랑의 빛을 진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한 마디로, 인간에게 너무 잔인하다.

하지만 복음은 말 그대로 기쁜 소식이 아닌가? 도대체 무엇이 기쁜 소식인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이 진리라면, 복음은 어떻게 이 모든 것에 대해 침묵할 수 있는가? 이 진리를 말하는 것이 더 잔인한가, 말하지 않는 것이 더 잔인한가?²⁵⁾

기독교에서 말하는 빛은 갚을 수 있는 빛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시다. 사랑이신 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류가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빛을 지셨다. 기독교의 엄밀한 책임의식은 바로 여기에서 발생한다. 윤리나 도덕률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혹은 결백에서 오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죄책(guilty)²⁶⁾으로 고난당할 때 온다.²⁷⁾ 가명의 저자 H.H는 책임의식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다룬다. 그는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23) Søren Kierkegaard, *Fear and Trembling* Trans. Howard V. Hong and Edna H. Hong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3), 130. [두려움과 떨림]의 세 번째 주제에 해당된다.

24) Søren Kierkegaard, *Works of Love*, 176-7.

25) Søren Kierkegaard, 『스스로 판단하라』, 101.

26) 이 말은 덴마크어로는 skyldig이다. 이 말은 정신분석에서 말하는 “죄책감”이라는 말로 설명될 수 없다. 정신분석에서 말하는 “죄책감”은 일종의 정신의 병으로 “내가 누군가를 다치게 하면 나도 언젠가는 다칠 거야”라는 불안이 숨어 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죄책이란 한 마디로 무한한 빛, 갚을 수 없는 빛과 같은 채무의식이다. 이런 점에서 키르케고르가 말하는 죄의식은 니체가 말하는 죄책과도 다르다. 니체가 말하는 것처럼 어떤 결핍이나 부족을 무한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니체는 죄와 관련된 기쁨을 “자기 확대의 기쁨,” “의지의 광기”라고 말한다. 니체에게서 죄의식은 공허한 자기희생만 유발시킬 뿐이다. 그는 기독교에 이런 광기가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키르케고르에게 죄책이란 어떤 명확한 잘못이나 실수에 대해 느끼는 책임이 아니다. 이것은 근원적인 죄에 대한 고발이다.

27) Søren Kierkegaard, *Upbuilding Discourses in Various Spirits* Trans. Howard V. Hong and Edna H. Hong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3), 266. 이 부분에 대하여 레비나스와 키에르케고어를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죄책은 무한한 빛, 갚을 수 없는 빛과 같은 채무의식을 낳는다. 결국, 자아는 이것을 이해할 때, 선물(gift)에 대한 무한한 과업을 인식한다. 긍정적인 의미에서, 죄책은 자기 자신을 개방하는 것이고 타자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여기에서 타자란 이웃과 하나님 양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죄의식은 윤리적 명령이 부재한 상황에서 타자에 대한 책임을 낳는다. 반면, 결백은 어떤가? 결백은 타자에 대한 어떤 책임도 없다. 결백에서는 어떤 채무 의식도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결백은 유한한 관계에서 타자의 요구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을 의미한다. 키에르케고어가 말하는 죄책은 조금 더 심층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사람이 진리를 위해 처형당할 때, 물론 그를 죽인 몇몇의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 이것은 충분히 명확하다. 나의 가정, 이것은 잊지 말아야 한다. 곧, 그가 처형을 당한 것은 실제로 진리를 위한 것이라는 데 있다.

어떤 시대에는 이를 행한 것이 기독교이든 세속 세계든, 지배 권력일 수 있다. 다른 시대에는 군중이 될 수도 있다. 가끔 이런 일은 법과 선고(law and sentence)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내가 가정한 대로, 그가 처형당한 것이 진리를 위한 것이 확실하다면, 이런 법과 선고는 거의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진리 없는 법과 선고가 다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따라서 그를 처형한 사람들은 살인자라는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 그때 내가 이를 행할 권리가 있는가? 혹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살인죄를 범하도록 하는 진리를 위한 권리가 있는가? 진리에 대한 나의 의무가 그런 본성을 지녔는가? 혹은 나의 동료에 대한 의무로 인해, 내가 약간은 양보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도대체 진리에 대한 나의 의무는 얼마나 멀리 도달해야 하며 다른 사람을 향한 나의 의무는 얼마나 멀리 가는가?²⁸⁾

조금 쉽게 설명하자면, 진리를 위해 처형당하는 사람이 더 큰 잘못이 있는가, 처형하는 사람이 더 큰 잘못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일반적으로 처형하는 사람이 더 나쁘다고 말하지만 HH는 진리인 자를 처형하도록 방치한 처형당한 사람이 더 나쁘다는 것이다. 이런 그의 설명은 마치 “청산 자살”을 생각나게 한다. “내가 죽으면 네가 행복할 수 있나 보자!”라고 속으로 생각하고 상대에 대한 보복으로 죽음을 선택하는 자살을 의미한다. 이런 죽음은 올바른 죽음이 아니다. 마치 이처럼 진리가 그에 편인 자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죽임을 당할 때, “진리는 내 편이다. 너희들은 크나 큰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이다. 어디 두고 보자!”라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곧, 이 말은 진리가 그의 편인 자가 죽임을 당할 때, 상대의 잘못에 대한 책임까지 져야 한다는 것이다. 바로 이 부분이 키르케고르가 가명의 저자 HH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책임의식이다.

6. 결론: 화해는 가능한가?

이제 서두에서 던진 질문에 대하여 대답할 차례가 되었다. 기독교는 현재 진보와 보수로 양분된 상태다. 동일한 성경을 두고도 해석을 달리하여 영원히 화해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인다. 단순히 여러 세계관을 설명하고 논의하는 것만으로는 어떤 해결책도 제시할 수 없다. 어떻게 서로 화해하고 하나 될 수 있을까? 연구자는 HH가 제시한 대로, 상대의 잘못까지 책임을 지고자 하는 책임의식에 이를 때, 그런 행위 앞에 설 때, 화해는 가능하다고 본다.

기독교 안에서는 상대의 관점을 내려놓으라고 강요하지 않는다. 상대를 설득하여 내편으로 끌어들이지도 않는다. 다만 상대가 가지고 있는 관점의 차이를 인정한다. 하지만 상대가 가진 관점을 인정하면서도 잘못된 영역으로 간다고 생각할 때, 마땅히 상대의 잘못까지도 책임지려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 이것이 사랑하는 자 입장에서 사랑의 빛을 지는 행위이기도 하다. 무한한 사랑의 빛을 지는 것이다. 하지만 인간으로는 이 길은 너무 잔인하다. 이에 대해 키르케고르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28) Søren Kierkegaard, *Without Authority* Trans. Howard V. Hong and Edna H. Hong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7), 68.

“그러나 이 조건은 인간에게 너무 높아. 사람들이 방탕자에게 돈의 총량은 그에게 충분하지 않고 그에게 돈을 주는 것은 바닥이 없는 구멍에 돈을 던지는 것과 같다고 말하듯이, 어떤 분투의 총량도 심지어 최소의 방법으로라도 그 조건을 소모시키지 못해.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가까이 간 순간에도 분투하지 않았던 자보다, 그의 모든 힘을 다해 정반대로 분투했던 자보다 단 1인치도, 1인치의 백만 분의 일도 하나님께 결코 가까워지지 않았어. 무한한 것, 무조건적인 것과 관련되어야 하는 것은 얼마나 지치며, 얼마나 쇠약해지는가. 자연의 힘이 인간을 조롱하고 그것을 유치한 장난으로 만들어 버리듯이, 무조건적인 것도 무조건적으로 인간의 노력을 조롱하는 건 마찬가지야. 무조건적인 것은 정말 인간을 위한 것이 아니야. 그것은 인간에게 너무 높아.” 29)

그에 의하면, 이것은 복음과의 관계를 잘못 맺었기 때문에 오는 결과라고 한다. 누구도 한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누구도 원수를 사랑하기란 쉽지 않다. 누구도 자신을 죽이려 하는 상대를 책임지기란 쉽지 않다. 이것은 기쁜 소식이 아니다. 무엇이 기쁜 소식인가? 그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물리적인 세계에서 들어 올리는 것은 무게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그래서 누군가 실수로 무게에 의해 들어 올림을 당하는 대신에 무게를 들어 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때 그는 놀린다.

그러나 그것은 무게 때문이 아니라 자신 때문이다. 그것은 무조건적인 요구조건도 마찬가지이다. 내가 그 조건을 들어 올리려 한다면, 나는 놀린다. 이것은 복음의 의도가 아니다. 복음의 의도는 요구조건과 나의 겸손으로 내가 믿고 예배하며 들어 올림을 당하게 하는 것이다. 그때 나는 새처럼 가볍다.30)

키르케고르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겸손이다. 겸손의 운동은 스스로 복음의 요구조건을 들어 올리려는 것이 아니다. 사랑의 빛 가운데 거하기 위한 운동이다. 다시 말해, 무한한 책임의식을 지기 위한 운동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무엇이 가장 많이 높이는가? 나 자신의 선한 행위에 대한 생각인가? 혹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생각인가? 그것이 가장 많이 높이 올릴 때, 축복을 받아 가장 현기증을 느낄 때, 나의 최선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비천한 무엇인가로 바뀌고 은혜가 더 커졌을 때가 아닌지 나는 궁금하다.

탁월한 사람이 탁월하게 말한 적이 있다. 위대한 은혜는 오직 위대한 비난으로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훌륭하다! 위대한 은혜가 감사로 보상을 받는다면, 많은 감사는 말할 것도 없고, 아마 은혜만큼이나 큰 감사로 보상을 받는다면, 그때 은혜는 감소된다. 그러나 보답으로서 위대한 비난은 은혜를 영구불변으로 위대하게 한다.31)

이는 상대에 대해 책임을 지지만 어떤 감사도, 어떤 보상도 받지 않으려는 행위다. 스스로를 어떤 감사나 보상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존재로 여기는 것이다. 아마도 다음과 같이 책임을 지는 행위에서 결론적으로 화해가 가능하지 않을까.

당신은 선한 행위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 악행으로는 더욱 예배할 수 없다. 그리고 무기력하게 완전히 탈진 상태에 빠짐으로써, 아무 것도 하지 못함으로써 거의 예배할 수 없을 것이다. 맞다. 올바른 하나님

29) Søren Kierkegaard, 『스스로 판단하라』, 102.

30) Ibid., 103.

31) Ibid., 104.

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함으로 올바른 기쁨을 누리기 위해, 사람은 이런 식으로 행동해야만 한다. 그는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 분투해야만 한다. 밤낮으로 몸을 사리지 말아야 한다. 인간적으로 말해서, 그는 신실한 사람들이 선한 행위라고 부르는 것을 축적해야 한다. 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때 그가 그것들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어, 그것들이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것으로 바뀌는 것을 볼 때,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이것이 높임이다.³²⁾

끝으로, 서두에 말했다시피, 호모 커넥투스를 넘어 AI 커넥투스에 대해 말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은 모든 것을 초연결 상태로 만들어 놓았다. 이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호모 커넥투스를 넘어 사물과 사물, 사물과 사물을 연결하는 AI 커넥투스의 시대가 되었다. 이 시대에 기독교 세계관은 어떻게 남을 것인가? 기독교 세계관을 갖고 사는 사람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연구자는 이 질문에 대해 “호모 모노트로푸스(Homo Monotrophus)”를 제시한다. 모노트로푸스는 “외톨이”를 의미하는 라틴어이다. 4차 산업혁명 중에 인공지능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인간을 대신해서 사물과 기계를 자동으로 움직이게 하기 위한 핵심기술이기 때문이다. 이런 인공지능의 기반은 확률 통계고 무엇보다 로지스틱 모형에 의한 기계학습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인공지능은 과연 무한한 빛을 지려는 책임의식을 지닌 그리스도인을 확률통계로 그 패턴분석이 가능할까? 아니, 연구자는 인공지능은 이런 사람을 결코 분석할 수 없다고 본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 다가오는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더욱 살기 어려운 시대가 올 것이다. 역사적으로도 그리스도를 본받고 살아갔던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소외되었듯이, 그리스도를 본받고 살아가는 사람은 더욱 소외될 것이다. 미래의 이런 그리스도인을 일컬어 우리가 “호모 모노트로푸스”라 불러보자.

32) Ibid., 105.

참고문헌

- Harari, Yuval Noah. 『사피엔스』 조현욱 역. 서울: 김영사, 2015.
- Kierkegaard, Søren. 『스스로 판단하라』 이창우 역. 서울: 샘솟는기쁨, 2017.
- _____. 『자기 시험을 위하여』 이창우 역. 서울: 샘솟는기쁨, 2018.
- _____. *The Sickness Unto Death* Trans. Howard V. Hong and Edna H. Hong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0).
- _____. *Works of Love* Trans. Howard V. Hong and Edna H. Hong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5).
- _____. *Fear and Trembling* Trans. Howard V. Hong and Edna H. Hong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3).
- _____. *Upbuilding Discourses in Various Spirits* Trans. Howard V. Hong and Edna H. Hong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3).
- _____. *Without Authority* Trans. Howard V. Hong and Edna H. Hong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7).

- 김승호, “국내 기독교 세계관 연구에 대한 성찰,” 『신학과 목회』 49집 (2018년 봄): 84.
- 박충, “기독교 세계관을 확 떼어 고쳐라,” 『복음과 상황』 122 (2002), 97-107.
- 최태연, “기독교 세계관을 고개 들게 하라!” 『복음과 상황』 123 (2002), 50-56.
- 양희송, “기독교 세계관: 담론, 운동, 혹은 논란(I),” 124 (2002), 42-52.
- 김기현, “명제신학 vs. 이야기 신학,” 『복음과 상황』 125 (2002), 80-84.

<https://wspaper.org/article/19355?fbclid=IwAR11iLL>. (검색일 2019.09.25.)

노동자 연대신문 2017.0.9.21일자 “4차 산업 혁명”이라는 호들갑과 기술결정론”